



배포 2025. 2. 24.(월)

“2025년 달랏 한국문화 체험의 날” 성료

- 달랏 초·중학교 300여명 한복, 사방치기, 투호, 김밥 등 한국 문화 체험
- 달랏교육지원청, 한국어 교육 확대 의지 밝혀

- 호치민시한국교육원(원장 길호진)은 지난 2월 23일(일) 달랏대에서 “2025년 달랏 한국문화 체험의 날”이 성료되었다고 밝혔다.
 - 이번 행사는 달랏교육지원청의 요청으로 한국어 채택 중학교 4곳의 200여명의 학생과 초등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.
 - 특히 학생들이 직접 양국 전통의상인 한복과 아오자이 패션쇼(꽁쑹중, Quang Trung), 달랏 홍보영상 제작·상영(판쭈찐중, Phan Chu Trinh), K-Pop 댄스 공연(람선중, Lam Son), 베트남 전통음식 시식 부스 운영(응웬주중, Nguyen Du) 등에 참여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.

[2025년 달랏 한국문화 체험의 날 개요]

- △ (주최) 달랏교육지원청, 호치민시한국교육원
- △ (일정/장소) 2.23.(일) 07:30~11:30 / 달랏대학교
- △ (대상) 꽁쑹중(Quang Trung), 람선중(Lam Son), 응우옌주중(Nguyen Du), 판쭈찐중(Phan Chu Trinh), 타티엔초(Da Thien), 응웬짜이초(Nguyen Trai)
- △ (주요내용) 한복체험, 한복 종이 접기, 초롱 만들기, 캘리그래피, 북마크 만들기, 전통놀이(사방치기, 제기차기, 투호, 공기놀이), 김밥 만들기, 한복·아오자이 패션쇼, 달랏 홍보영상 제작·상영, K-Pop 댄스 공연, 베트남 음식 시식 등

- 한편, 달랏에서 한국어를 채택하는 학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.
 - 달랏교육지원청 응웬 쭈언 평(Nguyen Xuan Phong) 부청장은 “현재 중학교 4곳의 한국어 수업을 초등학교로 확대하고, 교원들을 위한 수업 개설도 적극 추진하겠다”고 밝혔고,

- 이에 길호진 교육원장도 “양질의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여 배치하고, 학생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한국 문화 체험 기회도 계속 지원 하겠다”고 화답하였다.

기관	호치민시한국교육원	책임자	원 장 길 호 진 (84.28)3920-1274
		담당자	한국어교육전문관 엄 미 영 (84.28)3920-1274



○ 단체 사진



○ 한복·아오자이 패션쇼



○ 김밥 만들기



○ 한복 체험



○ 베트남 음식 시식



○ 투호 체험

